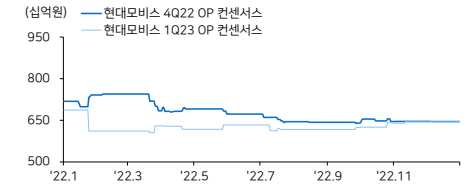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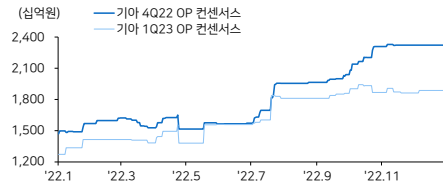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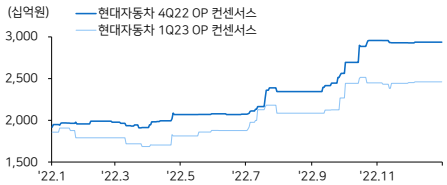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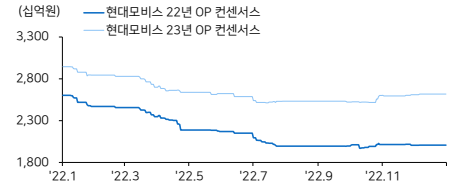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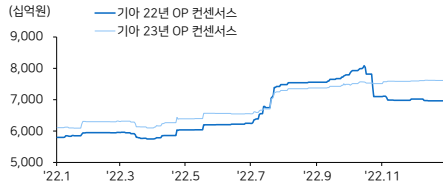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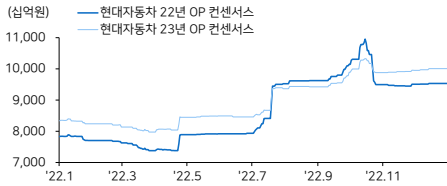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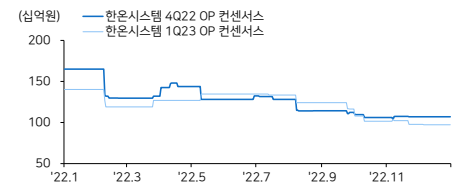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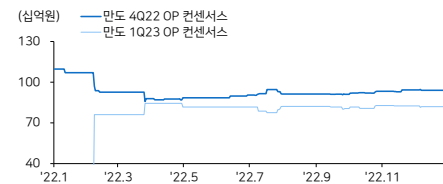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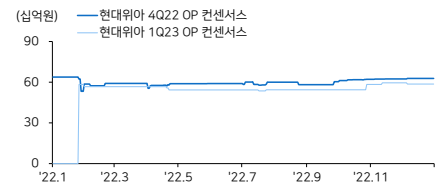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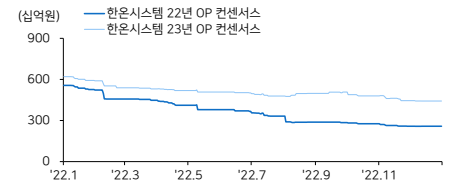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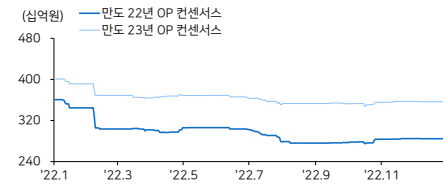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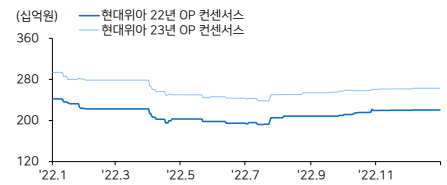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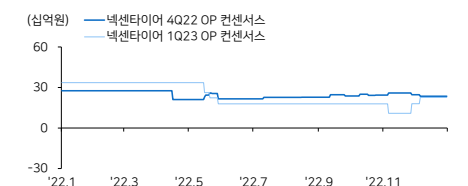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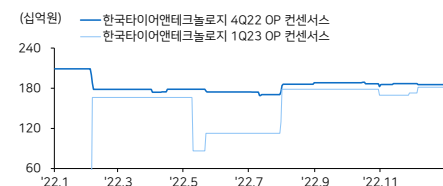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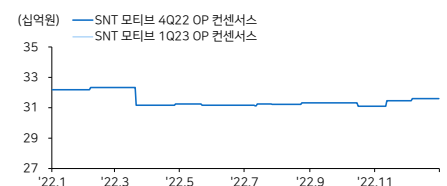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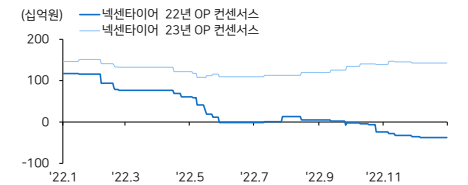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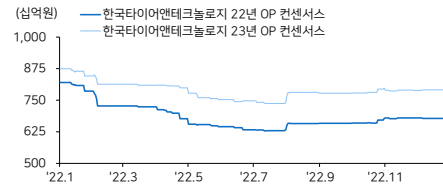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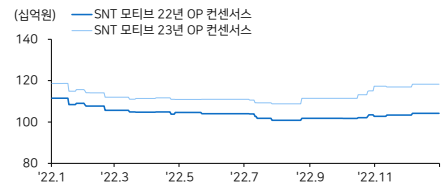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미국무부 경제차관 오늘 방한...공급망·IRA 등 논의 주목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에서 경제외교 사안을 다루는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이 9일 한국을 방문. IRA 관련 추가 의견 교환도 이뤄질 전망. 정부는 3월 발표되는 미 재무부의 IRA 하위 규정이 국내 기업에 우호적일도록 설득 중.
<https://bit.ly/3VUHZ6e>

인도, 일본 제치고 세계 3대 자동차 시장 등록 (글로벌이코노믹)

인도가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에서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간 인도 자동차 시장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큰 수준. 2021년까지 승용차를 보유한 인도 가정 비율은 8.5%에 불과.
<https://bit.ly/36LGCtC>

Mobileye begins autonomous driving tests in Germany with NIO ES8 (CNEV Post)

모빌아이는 1년 전 계획했던 독일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 NIO ES8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허가를 획득. 현재는 안전 운전자 감독하에 서비스 제공. 모빌아이는 향후 로보택시를 독일의 지역 대중교통에 통합할 계획.
<https://bit.ly/3Cy6r6p>

Carmaker Stellantis creates new data services business (Reuters)

스텔란티스는 SW 관련 수익을 늘리기 위해 데이터 서비스 사업부를 신설. 모빌라사이트(Mobilisights)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업부는 향후 커넥티드 차량을 활용하여 경쟁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고객에게 데이터 라이선스를 부여할 계획.
<https://reut.rs/3GMHjKc>

구글·MS·아마존이 미래차, 전통 기업이 메타버스... 새 먹거리 찾는 CES (서울신문)

CES2023에서 깜짝 놀랄만한 혁신이나 신제품은 거의 찾을 수 없었던 가운데, 구글/MS/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는 모두 차량 관련 기술 전시회 집중. 중앙 홀보다는 모빌리티 전시장인 웨스트 홀에 부스를 마련하고 홍보에 집중.
<https://bit.ly/3GrM8gZ>

현대차, 2022년 타타 제치고 인도 자동차 시장 2위 수성 (글로벌이코노믹)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시장에서 약 55만대를 판매(yoy +8%),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판매량 2위를 차지하였으나, 3위인 타타자동차(52.7만대, yoy +59%)와의 격차는 2021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https://bit.ly/3WTnc4r>

BYD starts construction of new \$1.5 billion battery base (CNEV Post)

BYD는 15억 달러 규모의 EV 배터리 공장 건설을 시작, 올해 12월 블레이드 배터리의 생산 시작을 목표로 함. 1단계 프로젝트로 연간 용량은 15GWh 수준으로 예상됨. BYD는 작년 1~11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
<https://bit.ly/3vKkUzl>

Tesla owners in China protest against surprise price cuts they missed (Reuters)

최근 Tesla의 가격 인하 이후 지난 토요일 할인 이전 Tesla 구매자 약 300명이 상해 배송센터에 모여 리베이트와 크레딧을 요구. 테슬라 차이나 대변인은 최근 가격 인하 이전에 인도받은 구매자에게 대한 보상 계획이 없다고 언급.
<https://reut.rs/3GNKkvG>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